

[종합]

전직 장·차관 등 37명 수사의뢰

감사원, '바다이야기' 감사결과 검찰에 통보 정동채·유진룡·배종신씨 직무유기 따져야 “문광부·영등위 부실 심사가 낳은 합작품”

감사원은 23일 '바다이야기' 등 성인 사형성 게임물 파문을 문화관광부의 무분별한 정책 추진과 영상물등급위의 부실 심사가 낳은 '합작품'으로 결론짓고 전직 문광부 고위관리와 영상물등급위 및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직원 등 3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23일 '바다이야기' 등 성인 사형성 게임물 파문을 문화관광부의 무분별한 정책 추진과 영상물등급위의 부실 심사가 낳은 '합작품'으로 결론짓고 전직 문광부 고위관리와 영상물등급위 및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직원 등 3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로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의뢰 한 대상은 문광부 정책담당자 외에 바다이야기에 메모리·연타(고베당) 가능 등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심의통과를 허용한 전 영등위 소위 의장 백모씨 등 5명, 메모리 연타기능이 탑재된 게임물의 심의통과 사실을 은폐하고 경찰의 단속을 방해한 영등위 사무국 K부장 등 4명 그리고 게임산업개발원 및 상품권 발행 업체 관련자 8명 등이 포함됐다.

다"고 밝혀 인증제·지정제가 도입·시행되던 시기에 제작했던 정동채 전 문광부 장관과 배종신·유진룡 전 차관 등이 포함돼 있음을 시사했다. 감사원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 등 정처권 실제 개입 및 의의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감사과정에서 밝혀진 게 없으며, 검찰에서 밝힌 부분이다"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문광부의 게임물의 등급분류와 단속기준이 되는 사형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영등위는 릴게임이 장착된 바다이야기 등이 사실상 카지노 기구화할 우려가 큰데도 지난 9년부터 지난 11월 까지 3천507종의 릴 게임물이 심의통과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론스타 “외환은행 안판다”

그레이켄 회장, 매각 계약 파기 밝혀

론스타 펀드는 외환은행 지분을 국민은행에 매각하기로 했던 계약을 종료했다고 23일 밝혔다.

론스타 펀드는 외환은행 지분을 국민은행에 매각하기로 했던 계약을 종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여 준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 거래가 성사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론스타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 파기 선언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23일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수차례에 걸친 검찰 수사 연장을 계약 파기 선언의 배경으로 지적한 것과 관련해 "수사는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며, 수사 개수 차례 연장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빛의만평

- 김중두

못믿을 공정위 직원들

현대차 부당내부거래 조사한뒤 상품권 받아- 자체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현대차 동태로부터 수 백만원대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가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3일 "현대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현장조사가 끝난 뒤 직원 7명이 현대차로부터 10만원 짜리 상품권 71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직원들도 나중에 현대차 측에 상품권을 되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지난 2003년 제정된 공직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들은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금품을 일절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금품수수 사실이 입증될 경우 파문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최근 현대차 계열사들이 거래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실을 포착하고 이에 관한 2차 조사까지 실시한 바 있다. 권오승 공정위원장은 최근 현대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관련해 "어느 정도 혐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분 실

약속어음
№ 자기0274759
금액 금50,885,000
발행인 현우기업(주)
발행일 2006년 11월 14일
지급일 2007년 4월 30일
지급처 국민은행 두산동 지점
최후소지인 조예순
상기 어음을 분실 공고함.

공시 최고

사 건 2006카공 85
신청인 이병민
잔남정공정공정권리 386-10
이해 관계 중의 소지인은 공시대상인 2007. 3. 26. 10: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중지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의 이를 가결하면 권리 상실하며 중지의 부활이 신고될 수 없습니다.

공시 최고

사 건 2006카공 84
신청인 박민규
공주 관산구 월곡동 546-3
이해 관계 중의 소지인은 공시대상인 2007. 3. 26. 10: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중지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의 이를 가결하면 권리 상실하며 중지의 부활이 신고될 수 없습니다.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이원산(450722-1566410)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제정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 시행에 따른 관할 법률 제 1092조의 위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부터 2개월내 제원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한정승인이 확정하며 상속의 부활이 신고될 수 없습니다.

전인권을 직원모집

문화도시 광주에서 "전인권 클럽"을 open합니다. 가수 "전인권"과 함께 할 문화도시를 빛낼 젊고 참신한 가족을 찾습니다.

분 야	성 별	모집인원	자 격
경 리	여	0명	윈드, 역설, 파워포인트, 가능한자
기 획	남/여	0명	공연기획관심있는분, 경험자우대
배연	여	0명	신인, 경험자
조명/음향	남/여	0명	경험자

2. 모집기간
2006년 11월 23일(목)~30일(목)까지 (매너는 수시모집)
광주-전남에 활동중인 락 밴드 수시 오디션을 보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 가수 "전인권"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3. 제출처
서류접수처: 광주광역시 동구 불로동 131-1 3층(유창빌딩)
전 화: 062)224-0300 FAX)062-233-7055
담당 자: 011-9608-0081

(주)전인권 기획

진도군 공고 제2006-215호

환경·교통영향평가서 초안공람 및 설명회 개최공고

진도 군내지방산단단지 조성사업 종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환경·교통·지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진도군수

- 사업개요
○ 사업 명: 진도 군내지방산단단지 조성사업
○ 위치: 진도군도 진도군내 군내면 녹진리 산 223번지
○ 면 적: 684,280㎡(2006.9.788평)
○ 사업시행자: 고려조선주식회사
○ 사업기간: 2006. ~ 2008. 12
-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2006. 11. 27 ~ 2006. 12. 16 (20일간)
○ 공람시간: 09:00 ~ 18:00
○ 공람장소: 진도군청 민원실(전화 061-540-3243) 군내면 사무소(전화 061-540-3822)
-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시: 2006. 12. 5(화) 15:00
○ 장소: 진도군청 문화체육관
- 의견제출
○ 제출기간: 공람기간 종료일(12월 16일) (2006년 12월 22일까지)
○ 제출대상: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의 감소방안
○ 제출방법: 관내민가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용지에 기재하여 서한 제출
-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아래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명회 관련: 환경복지과(전화 061-540-3158)
○ 사업내용관련: 기획예산실(전화 061-540-3800) 농산유통과(061-540-3002)

매일밤 8시부터 쏠! 쏠! 쏠! 애들은가라!!

방실이 실운도

11월 29, 30일 12월 7, 8일

정통 성인나이트 만을 고집하는
광주 상무나이트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

부킹천국 100%